

제대군인 아버의 영주 정착기 : 북위 36.5°의 삶

스토리 인물(일반인)
스토리발굴 장지호

“이 순간 우리가 즐기고 있는 이 땀방울은 건강하고 성실한 이들과만 누릴 수 있는 삶의 축복입니다. 가족과 함께 하는 소박한 일상과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갈 수 있는 이 삶의 터전을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이 있게끔 나를 이끌어 주었던 푸른 제복의 지난날을 어찌 그리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제대군인의 한 사람으로서 우연한 기회를 통해 영주에 정착한 지 5년이란 시간이 지났을 무렵 국가보훈부 주관으로 시행된 2020년 전역장병 수기 공모전에 선정된 글입니다. 군 복무 후 사회 적응과정을 거치며 수 차례의 실패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지만,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저의 작지만 소중한 경험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원하며 펜을 들게 되었습니다. 300여 편의 응모글 중에서 대표 도전기 13편에 선정되는 영광을 얻게 되어 너무도 뜻깊은 순간이었습니다. 아무런 연고도 없던 이곳 영주에서 인생 2막을 시작하였고, 좋은 인연을 만나 가정을 이루고 이제는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누구보다 행복한 삶을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평범하지만 소박한 일상을 소중히 여기는 한 사람의 영주인으로서 영주 정착의 지난날들과 오늘을 되새겨 보고자 합니다.



〈영주소식지 「36.5 스물세번째 이야기」 중〉

Q1 영주에 정착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나요?

전역 후 국가 기간 전략산업 직종 훈련으로 선정된 자연생태복원기사 양성과정을 고향 대구에서 4개월에 걸쳐 받았습니다. 양성과정의 마무리될 즈음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의 탐방안전 분야 선발공고를 접하였고, 군 복무경력과 전역 후 전문성 제고를 위한 각종 노력을 인정받아 재난구조대원으로서 이곳 영주에 첫발을 디게 되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란 신분적 한계가 있었지만 직무 전문성을 높이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동료들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좋은 인상을 남겼던 것 같고, 직장생활이 안정되어가던 중 당시 직장 8년 선배였던 아내와 부부의 연을 맺게 되며 이곳 영주가 사실상 제2의 고향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Q2 아무런 연고도 없던 만큼 정착하는 데 어려움이 컸을 텐데, 지금까지의 정착 과정을 소개해 줄 수 있나요?

제대군인의 한 사람으로서 어느 때, 어느 곳에 있더라도 항상 배우려는 자세와 긍정적 태도를 견지하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하루를 시작하였습니다. 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로서 사회·경제적으로 미약한 존재로 여겨질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스스로 끊임없이 발전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재난구조대원으로 2년간 경력을 쌓았고, 이후 기회를 얻어 영주국토관리사무소의 국도관리원으로 이직하여 예전보다 안정적으로 생활을 꾸려나갈 수 있었습니다. 큰 수입은 아니었지만 부부가 함께 하면서 가흥동 택지에 신축 아파트도 마련하였고, 아이에게 좋은 교육기회도 제공할 수 있어서 다행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새로운 도약을 위해 노력한 결과 지자체 청원경찰에 최종 선발되어 다시금 공직에서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뜻깊은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Q3 이주민의 한 사람으로선 다소 이색적인 기록이 많다고 하던데 말씀해 주세요.

천성적으로 외향적인 성향은 아니지만 내가 속한 조직이나 주어진 상황 안에서 좋은 결과를 만들고 싶은 욕구가 강한 편입니다. 그리고 타지 출신이지만 우리 부부와 아이가 일상을 함께하는 이곳 영주에 대한 관심이 크다 보니 이런저런 이유로 각종 공모전이나 행사에 참여하며 좋은 모습을 남기고 싶었습니다. 영주라는 테마를 중심으로 여러 시도를 한 결과 다양한 공모전에서 입상도 하였고, 평범한 일상의 모습들이 기관지나 신문에도 실리는 인생의 작은 이벤트들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곳 영주가 정말 잘 되길 기원하며 참여하였던 선비글판 공모전을 3번째 도전 만에 입상하게 된 것이 너무나 감명 깊었습니다. 그때의 좋은 기억을 되새겨 지금 이렇게 도시문화기록가로 참여하며 제 삶의 한 부분을 영주문화라이브러리에 아카이빙하고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합니다.



〈영주시민신문 제929호 2023년 9월 14일 중〉



Q4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어느덧 영주에 정착한 지도 8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제대군인의 한 사람으로서 성공적인 사회적응을 위해 노력한 결과 영주라는 낯선 타지에서 누구보다 행복한 삶을 일구어가고 있습니다. 당당한 사회인이자 한 아이의 떳떳한 아버지로서 군 경력과 국립공원, 국도관리 현장에서 체득한 업무역량을 새롭게 시작하는 공직에서 보다 가치있게 기여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영주를 살아가는 많은 이들의 쾌적한 삶과 행복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다면 큰 영광으로 간직할 것입니다.

